

(Ⅱ) 신앙의 현실성

□ 제 1 회 □

L: 우리가 신앙을 말하려면, 당연히 인간 문제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또 신앙을 말하려면, 하나님에 관한 문제 역시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 문제를 다루려고 하면 하나님을 말하지 않을 수 없고, 반대로 하나님을 말하려면 인간 문제를 다루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인간 문제를 도저히 떼어 분리하여서 생각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라는 것이 두 가지 테에마가 아니라 한 가지의 테에마이며, 이 두 테에마의 관계를 떠나서는 하나님 문제나 인간 문제를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하겠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관한 지식만 갖추면 신앙의 길에 도통한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겠지요. 추상적이고 중립적인 하나님이란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삼위일체 교리를 강조한다고 해도, 인간 문제를 제외하고서는 신앙 문제를 제대로 다룰 수 있다고는 하지 못할 것입니다.

K: 지난 번에 말한 대로,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소유하는 물건이 아니라 한 사건이기 때문에, 내가 신앙을 가졌다가 나 내가 신자라는 말을 하기에 앞서, 내가 믿는다는 사건으로 표현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앙이라는 것이 한 인간으로서의 나에게 어떤 변화나 영향을 준다는 사건일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의 주체는 구체적으로 믿는 인간 자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의 믿는 일을 사건으로서 다루고 말할 때에는, 내가 전 책임을 지고서 말해야 할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내가 믿는 일에 대해서는 나 자신 밖에 책임질 사람이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부모의 권유 때문에 믿었다거나, 선생이나 목사의 권면이 못 이겨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으나, 그러한 점을 다 고려하고라도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궁극적으로는 자기가 하는 신앙의 행동에는 자신 밖에 책임을 질 사람이 없습니다. 이 책임은 때로는 꼭 무자비한 책임이요 엄격한 책임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회피하거나 묵살하려고 할 때에 모름지기 신앙의 타락이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타락이라고 하면 먼저 행위 면에서 나쁜 것을 한다는 것을 생각합니다만, 사실 이런 책임을 지지 않는 신앙부터가 바로 근본적인 타락이라고 하셨습니다. 무책임한 신앙은 태까당이므로 성전을 쓸어 버리고 청소하듯이 없이 해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책임적인 신앙은 자신이 믿는다는 일을 냉철하게 정직하게 스스로 비판할 수 있습니다.

L: 그런데 신앙의 주체가 어디까지나 인간인 나 자신이라고 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신앙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나’가 종말을 고하고, 나 아닌 나가 되어지는 데 있다고 하면, 인격적인 나라는 것이 정말 신앙의 주체라고 할 수 있을지 참으로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로 하여금 나로서 존재하게 하는 하나님께서 어디까지나 신앙의 주체가 된다고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 점은 기독교적인 인간상, 새로운 인간상의 문제와 깊은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간이 책임적으로 믿는다는 것과, 신앙의 주체가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은 서로 용납하지 못한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책임적인 신앙이 자칫하면 인간을 그대로 긍정하는 인본주의가 될 수도 있고, 반면에 신앙의 주체는 하나님에게만 있다고 하면 무책임한 신앙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 생활이 대단히 모호하고 흐릿한 것이 되어 버린다고 믿습니다.

K: 사실 그렇습니다. 신앙의 주체가 어디까지나 인간이라고 하는 데는 여러 가지로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계 문답을 할 때, 목사의 질문 가운데서 “……하는 것을 믿는뇨?”라고 하면 “예” 하고 대답하는데, 이렇게 목사의 물음에 대해서 “예”라고 대답할 때는, 그 “예”에 대해

2. 신앙의 현실성

서 내가 전적으로 책임 지는 것이지, 내가 아닌 어떤 다른 존재가 나 대신에 그 “예”에 대해서 책임을 저 주는 것은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써어 있습니다. 이 말은 결코 믿는 것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나를 믿는다는 말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 속에서 사건으로서 일어나고 있는 신앙을, 나의 삶의 자세를 변화시켜 가지고, 나를 인격자로 다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주체가 ‘나’라고 할 때에, 그 ‘나’라는 주체가 전적으로 ‘인간성으로서의 나’일 뿐만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믿는 ‘신적인 나’라는 뜻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한 바와 같이, 인간과 하나님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는 말은 여기서도 타당한 것입니다.

L: 그 점에서 우리는 신앙의 자유라는 문제를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본래 신앙과 자유라는 것은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흔히 신앙의 자유라는 말을 자주 듣지만, 그 내용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정치적인 의미에서 말하는 신앙의 자유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가 믿을 자유를 가진다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 자유도 따라서 있을 수 있지요. 그리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신앙이 자유에 의지해서 존재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즉 자유가 선행되어야 있을 수 있는 신앙이란 말이겠지요. 그러나 진정한 신앙의 자유라는 것은 신앙 자체가 드러내고 입증하는 자유입니다. 이 자유는 헌법상의 혹은 정치적인 신앙의 자유와는 차원이 다른 내면적인 자유일 것입니다. 헌법으로 보장된 그러한 정치적인 신앙의 자유보다도 더 근본적인 자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K: 본래 신앙이라는 것이 강제로 되어질 수 없는 것임은 두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는다는 일은 내면적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이란 그의 본질적인 성격상 밖으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로부터의 압력에 좌우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에 있어서 어떤 강제적인 권력이 신앙의 자유를 위협하는 일은 없지만, 인간을 비인격화하는 현대 문명의 압력과 압박이 신앙의 자유를 저해하는 수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대의 신앙의 자유는 헌법이나 정치적인 권력의 압박을 받아서가 아니라, 경제, 문화적인 상황 속에서 인간 스스로가 자유를 유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꼭 모순된 이야기 같습니다.

L: 그러면 근본적인 의미에서 말하는 신앙의 자유란 무엇 일까요?

K: 글썄올시다. 아마도 자유라면 해방을 전제로 하는데, 인간이 먹고 마시고 하는 생활에서 자유롭다고 하면 역시 이런 일에 얽매이지 않는 것을 말하겠지요. 그것을 정신적인 면에다가 결부시켜 말한다면, 죄와 죽음에 얽매어서 종 노릇 하지 않는 생활을 하는 것을 뜻할 것입니다. 본래 죄와 죽음은 거의 예외 없이 모든 인간을 종으로 만들고 인간을 소의 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L: 죄와 죽음 때문에 인간은 교만에 빠지거나 그와 정반대로 절망에 빠지게 된다고 하겠지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결코 윤리적인 과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래적인 존재 양식에 있어서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고 종 노릇한다는 것, 곧 인간의 소의 상태를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K: 구봉(九峰) 광산 속에 파묻힌 김창선 씨가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서 공포와 불안을 극복하고 어린 시절에 놀던 때를 생각하고 있다는 전화를 하더라는 말이 신문에 실린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도 인간이 자유스럽다는 상태의 극치가 바로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요? 이렇게 되기까지는 죽음에 대하여 김 씨는 갖은 불안과 심적인 고통을 겪었을 것입니다. 가족에 대한 걱정, 고독, 원망, 그리고 체념, 또 그 체념 속에서도 속일 수 없는 일무의 희망, 이런 복잡한 심경 속에서 한 번 모

2. 신앙의 현실성

든 것으로부터 해방을 당할 때 어린 시절에 놀던 일을 회상하게 될 수 있다고 봅니다.

□ 제 2 회 □

L: 신앙에 있어서의 ‘나’의 문제, 즉 주체로서의 나와 하나님이라는 문제가 기독교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앙을 단순히 현실과 유리된 경건한 기분에서 가지는 것으로만 생각하면, 대단히 위험한 신앙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기독교가 비판을 받는 점이 신앙의 비현실성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신앙이라는 것을 일요일 교회당에서만 실재하는 것이며 평일에 지내는 일상 생활에는 신앙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고 이 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을 받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신앙의 현실성이라는 문제는 아주 초보적인 것입니다만, 초보적인 문제인 만큼 단순하면서도 쉽게 대답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앙의 실재성 혹은 현실성의 문제를 가지고 잠시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K: 참 좋은 문제입니다. 신앙의 현실성과 신앙의 주체의 문제를 자연스럽게 결부시켜 생각하게 됩니다. 지난 번에도 말씀한 대로, 신앙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은 인간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과 같은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주체인 인간을 말한다고 하면 으레 빠지기 쉬운 오해는, 인간을 개인으로서만 다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으로서의 인간이란 현실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자아는 ‘그대’와의 만남에서 비추어지는 자신을 볼 때에 진정한 자아 의식, 개인으로서의 자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신앙의 주체로서의 인간을 구체적으로 생각하려면, 타자와의 만남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인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으로서의 인간만을 생각한다는 것은 신앙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문제는 고사하고 아주 비현실적인, 추상적인 관념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L: 신앙의 현실성은 역시 신앙의 힘이라는 것과 관련시켜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현실이라는 것을 막연한 현상과 사실의 집합체로서 생각한다면, 신앙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문제가 됩니다. 여러 사실이 합쳐서, 현실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면 신앙을 생각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어떤 ‘힘’으로서 해석하고 파악할 때, 여기서 비로소 신앙의 ‘힘’이라는 문제와 아울러 신앙의 현실성이라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흔히 하는 말 가운데 무력하다, 신앙에 ‘힘’이 없다 하는 말을 듣는데, 이것은 신앙의 비현실성을 의미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신앙의 ‘힘’이라는 것과 신앙의 현실성의 관계를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좀 생각해 볼 만한 문제입니다.

K: 신앙의 ‘힘’이라고 할 때, 먼저 우리는 힘이라는 말의 근본 의미를 캐내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힘이 세다, 힘이 있다는 말을 쓰는데, 이 힘이라는 말만큼 내용이 풍부한 말도 아마 드물 것입니다. 육체적인 힘에서 시작해서, 자연의 힘, 정치적, 군사적 힘, 지식의 힘, 그리고 나아가서는 신앙의 힘, 사랑의 힘, 생명의 힘 등 여러 가지로 말하는데, 흔히 이러한 힘 중에서도 우리가 늘 감축할 수 있는 자연이나 정치 질서의 힘에 지나치게 주의를 기울이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정치적 가치가 우세한 한국의 실정에서는 정치적 힘, 이것을 권력이라고 해도 좋습니다만, 이러한 정치 질서에 따르는 힘을 최고의 것으로 생각하는 폐단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따지고 보면, 사랑의 힘, 인간 관계에서 벗어지는 신뢰나 사랑의 힘이 더 근원적이고 자연이나 정치적 힘의 바탕이 된다는 것을 부정할 길이 없습니다. 만일 이러한 신앙이나 사랑의 힘을 부정한다면, 그것은 인간의 생 자체를 부정하는 결과 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근원적이고

2. 신앙의 현실성

궁극적인 사랑과 믿음의 힘이라는 것이 현실적인 힘 앞에서는 늘 꺾이어지고 무력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무력하다, 비현실적이다 하고 말합니다만, 그렇게 무력한 것처럼 보이는 사랑이기 때문에 신앙 안에서 사랑을 전제로 하고 믿는다는 일이 어렵고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을 좀 정리해서 말한다면, 신앙은 어디까지나 믿는 나에 관한 문제이며, 이 나라라는 것이 현실적인 존재이니까 나를 통한 믿음에서 믿음의 현실성을 찾는 일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현실적인 내가 생을 유지하는 힘은 다만 믿음에서 비롯된 사랑의 힘을 모든 현실의 바닥에 깔린 근원적인 것으로 파악하는 데서 솟아 나온다고 하겠습니다.

L: 신앙의 입장에서 말한다면, 그 힘이라는 말의 근본 뜻을 완전히 바꾸어서 생각한다는 뜻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말하는 힘, 권력에다가 힘의 궁극적인 기준을 두지 않고, 무력하게 보이는 신앙과 사랑에다가 힘의 기준을 두는 것이 가치의 전도(顛倒)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회개의 생활이란 이러한 가치 기준에 큰 변혁을 일으키는 생활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역시 기독교에서는 인간의 무력을 다만 불신앙에서 찾는다는 것이겠지요. 죄의 명예라는 말을 성서에서 자주 읽게 되는데, 이 죄의 명예라는 말은 잘 분석하면 불신앙 때문에 생겨지는 무력(無力)의 힘, 즉 힘이 없는 것 중에서 힘을 의지하는 생활, 진짜 힘이 아닌 것을 진짜 힘인 양 오인하고 지내는 생활을 말한다고 봅니다.

K: 그런데 신앙적인 입장에서 말하는 무력, 즉 진짜 힘이 아닌 것이 힘이라고 하는 자연적, 정치적, 기술적인 힘이 그러면 현실적으로 아무런 영향이나 효과가 없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의 각 분야에서 이러한 힘이 역시 현실적인 힘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으니깐요. 그러나 이러한 힘이 가장 무력함을 드러내는 것은, 과거를 변하게 하지 못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는 말입니다. 한 번 일어난 일, 과거에 속하게 된 일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미래에 대해서 비교적 무력하다고 하면 과거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무력합니다. 그런데 나 자신의 과거와 미래에 대해서 무력하다는 것이 결코 자연적인, 운명적인 무력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다만 자신의 과거와 미래를 운명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여기서 도피하려고 할 때, 비로소 무력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 과거와 미래에서 나 자신이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데서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가 생겨집니다. 인간이 운명을 극복하고 창조적인 생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나 자신의 무력을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의 태도와 상통한다는 역설적인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L: 결국 나 자신의 자아의 무력을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인간의 참 자유와 신앙의 길을 막는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훌륭해서 믿는 생활을 한다고 하지 말고,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 하나님에게서 신뢰를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참 힘있는 생활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제서야 우리는 자기가 어떤 존재임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역시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있다면, 자기를 아는 사람, 이렇게 자신의 존재의 바탕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사람일 것입니다.

K: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고 하는 말은 철학자의 말이면서도 기독교 신앙에서도 빼어 놓을 수 없는 명언이라고 하겠습니다. 사실 성서의 전체 테에다가 이 말로 표현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사람이 자기의 삶의 바탕이 어디에 있으며, 그 힘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 줄을 아는 것이 구원의 생활입니다. 이런 생활에서는 과거와 미래가 현재라는 순간 속에서 창조적인 계기가 되어서, 이 현재의 나에게 운명을 구

2. 신앙의 현실성

복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이 힘이 정말로 무서운 힘이요, 정치적 힘이나 자연의 힘으로도 막아 낼 수 없는 인간의 본래적인 힘이라고 하겠읍니다.

□ 제 3 회 □

L: 지난 시간에는 신앙의 영역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영역이 어떤 공간적인 것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창조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에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 신앙의 영역이 이 세상이라고 하는 데는 여러 가지 문제성이 따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실제성이나 또 신앙의 힘을 테스트하는 곳은 교회 안이 아니라, 창조의 절서라고 할 수 있는 이 세상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현재의 교회 생활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만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신앙의 항구성이라 할까, 꾸준한 신앙의 모습을 잠시 생각해 볼까 합니다.

K: 신앙의 실제성과 그 능력에 관한 이야기에서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이 세상 안에서 신앙이 현실성과 그 힘을 가질 수 있다고 할 때, 신앙은 언제나 '여기서'와 '지금'이라는 두 가지 면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이 현실 속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점에서 검토되고 분석되어질 수 있습니다. 한 마디로 현실이라고 하지만, 사람은 각자마다 현실을 보는 입장과 해석하는 입장이 다르다는 것을 지난 번에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잡다한 현실에 대한 견해에 한 가지 공통한 점이 있다면 그것은 '유혹'이라는 것이라고 하겠읍니다. 현실 속에서 사는 신앙은 언제나 유혹과 위협을 받는 신앙입니다. 좀 극단으로 표현한다면, 이러한 현실적인 위협이나 유혹이 없는 신앙은 죽은, 생명 없는 신앙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L: 그리고 보면, 유혹과 시험이라는 것이 신앙을 단련하는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것임에 틀림없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욥이나 시편 같은 데 보면, 신앙과 유희과의 심각한 관계에 대해서 훌륭한 증언을 읽을 수 있습니다. 신약성서에서도 예수께서 겔새마네 등산에서 하신 기도,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나를 왜 버리시나이까?” 하고 외치신 일도 다 인간의 힘으로서는 이길 수 없는 유희과 시험의 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K: 그 밖에 신약성서에서도 이 유희과 시험에 관한 사도 바울의 외침을 여러 군데서 볼 수 있습니다. 종교 개혁자인 마틴 루터의 그 유명한 95개조 테에마 중에서 중요한 한 가지는 믿는 사람이 언제나 하나님의 진노와 고발에 대하여 노정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례를 받는 것도,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사는 일 즉 매일 매일의 생활 속에서 죽는 일과 사는 일을 경험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의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이 꾸준한 신앙과 유희에 관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이 절대로 어떤 사상 체계가 아니라, 하나의 사건으로 이해되어야 하겠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으로서의 신앙에 대해서는 언젠가도 다룬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건이라는 말을 자칫 잘못하면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신앙에 있어서는 언제나 무엇이 생겨진다는 것이 본질적인 일입니다. 즉 불신앙에서 신앙으로 돌이킨다는 일이 생겨지는 것을 말합니다. 적어도 신앙에는 언제나 불신앙이라는 것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는 의미에서 그 불신앙에서부터 신앙으로 전환한다는 것, 그 신앙 때문에 불신앙이 패배를 당한다는 데서만 신앙을 말할 수 있다고 봅니다.

L: 요컨대 신앙을 사건이라고 할 때, 그 사건이라는 것이 한 번 일어났다가 그것으로 종결되어지는 사건이 아니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회개한다는 사건을,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그것 자체로서 하나의 완결된 사건이라고 보기 쉬운데, 역시 회개한다는 것도 늘 이러한 계속적인 사건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계속적인 회개의 연속적

2. 신앙의 현실성

사건이라고 하지만, 신앙에는 유일회적(唯一回的)인 성격이 있는 것을 부정할 수 있지 않을까요? 신학에서 말하는 신앙의 유일회성, 즉 한 번 일어나서 그것으로 종결되어지는 면이 신앙에 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K: 그리스도의 사실이 유일회적이에요. 다시는 반복될 수 없다는 데서, 계시의 완결성과 유일회성을 신학에서는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삶, 죽음, 그리고 매일 매일의 사건은 절대로 반복되어지지 않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합니다만, 엄격한 의미에서 역사는 언제나 같은 모양으로 반복되어지는 않습니다. 반복이 되는 것 같이 보여도, 늘 새로운 내용을 가지고 발전하면서 반복하는 것 같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의 비반복성과, 아까 말한 신앙의 항구성 즉 신앙과 불신앙과의 항구적인 계속성을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 계시는 틀림없이 반복될 수 없는 유일회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신앙은 인간이 사는 동안에 겪는 한 사건에서 완결된다고 할 수 없다는 말과는 혼동될 수 없습니다. 신앙은 한 사건에, 즉 그리스도의 사건에서 비롯되지만, 신앙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삶 전체, 즉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 인간의 독특하고 유니크한 생활 속에서 반복되고 이겨 나가는 데서 생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싸우는 요소, 이겨 나가는 면, 시련과 유혹을 극복해 나가는 면을 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L: 지난 시간에 우리는 시간이 신앙을 결정한다고 했으나 다만, 여기서는 신앙이 시간을 결정한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앙은 결코 시간에 대해서 탐욕을 부리지 않을 것이고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할 수 있게 되는 것도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시간의 종이 아니라 매 시간마다 결단을 내리는 것으로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시간을 나의 종으로 삼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참 신앙의 생활에서는 매 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간이 새롭게 거듭 나는 시간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마다 새로와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질문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K: 시간마다 새롭게 거듭 난다는 것을, 심리적으로 후련함을 순간 순간 느낀다거나, 깊은 명상 속에서 자기 승화를 경험한다는 뜻이 아니라, 시간마다 닥쳐오는 일에 대해서 결단을 내린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단을 내리는 일이 늘 있는 수도 있겠으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실생활 속에 아무 예고도 없이 닥쳐오는 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결단은, 일상적인 것에 대한 결단도 있겠으나 다만, 인간이 자기의 구극적인 생의 의미, 삶의 본질,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결단을 내리는 것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신앙은 사람의 삶의 한 단편, 한 면만을 가지고 '종교적'이란 형용사로서 다루어질 것이 아니라, 생명 자체와 함께 죽을 때까지 인간의 삶 전체를 받침해주는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L: 신앙은, 생명과 생활 자체가 체계화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추상적인 체계 속에 몰아 넣을 수 없다는 말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다고 신앙에는 아무런 논리가 없다고 단정할 것도 아닙니다. 신앙은 어디까지나 나와 현실 사이에서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들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늘 주시하고, 생활에 대해서 늘 예민한 반응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현실에 대해서 늘 경계하게 듣고, 보고, 또 기도하는 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이 언제나 미완성으로 끝나게 되는 것을 깨닫는 태도가 꾸준한 신앙의 진상이라고 하겠습니다.

K: 요컨대 신앙은 언제나 유희과 시험 속에서 자라나고 단련을 받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날에 있어서 신앙 생활의 가장 곤란한 점은, 무엇이 참된 유희인지를 분간 못하는 데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신앙이 무엇인가 하는 것

2. 신앙의 현실성

도 중요하지만, 신앙이 이겨야 할 유혹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유혹의 깊이와 배후하는 점을 모르면, 신앙의 기적도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 제 4 회 □

L: 마지막으로, 신앙의 미래상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인 요한 계시록에는 미래에 대한 웅장한 묘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성서에서는 이 미래에 대한 기사가 여러 군데 나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미래라는 것이, 흔히 우리가 말하는 '과학의 미래'라든지 '민주주의의 미래'라는 말과는 다르게 생각해야겠다는 것입니다. 미래는 모르는 것, 또 미래는 미래로서 과학이나 지식으로써는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과학이나 기술은 어느 정도 미래에 대한 확실성과 안전을 예견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지요.

K: 그렇습니다. 신앙의 미래를 생각하려면 신앙의 역사 안에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개 신앙의 미래를 기독교의 미래나 교회의 미래라는 말로 흔히 표현합니다. 그런데 신앙이라는 말 대신에 기독교나 교회라는 말로써 미래를 말할 적에는 거기에 다분히 자기 주장과, 자기가 속한 교파나 교회의 미래에 대한 관심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미래는 기독교나 교파, 교회의 미래보다도 신앙 자체가 미래를 어떻게 보는가 하는 것을 더 근본적인 문제로 하는 것 같습니다. 신앙의 미래는 미래 자체를 변하게 하는 미래와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신앙이라는 것은 미래와의 관계에서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미래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곧 미래인 것입니다.

L: 결국 신앙이 미래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신앙이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여기서 신앙이 창조하는 미래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점을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 문제를 말할 때, 늘 언어의 도움을 가지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신앙과는 거리가 먼 일상적인 언어로써 신앙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미래라는 말도 일상적인 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신앙의 미래와 관련시켜 생각한다면 좀 더 해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K: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일상적인 말이 아닌 어떤 특수한 말로만 표현된다면, 그것은 잘못입니다. 신앙은 어디까지나 이 세상 안에서 표현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 안에 있는 언어로써 표현되어야 합니다. 신앙은 이 현실의 생활을 다루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공중에 떠 있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일상적인 용어를 사용하지만, 신앙은 그 용어를 다른 각도에서, 다른 의미로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의 입장에서 하나님이라는 말을 한다면, 그것은 이 세상에서 흔히 쓰는 하나님이라는 말과는 다른 의미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과 미래의 관계에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그 미래라는 말도 우리가 흔히 쓰는 미래라는 말과는 의미가 다를 것입니다. 여기에 신앙의 문법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신앙의 언어가 어떤 특별한 방언과 같은 것이 된다는 뜻이 아니라, 일상적인 용어를 새로운 의미로써 사용한다는 것이 될 것입니다.

L: 신앙은 언제나 유혹에 직면해야 한다고 지난 번에도 말했읍니다만, 신앙의 용어가 이 세상의 일상성을 벗어난다고 할 때에는, 바꾸어 말한다면 그것은 이러한 유혹에서의 도피를 말한다고 할 수가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실제에 있어서 신앙의 입장에서 하는 용어가 새 의미를 가진다고 하면, 그것이 그 말의 옛 뜻 즉 본래의 뜻과 서로 분리된다고는 할 수

2. 신앙의 현실성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신앙의 용어가 가지는 본질적인 충돌, 갈등이 생겨진다고 봅니다.

K: 아마 그렇게 되면 이런 사실을 생각할 수 있겠지요. 이런 옛 의미를 이해하고 즉시 이에 반대 되는 내용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신앙의 언어에 있어서 우리는 늘 신앙이 어떤 유혹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언어를 제대로 이해하고 해석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언어 안에 감춰어져 있는 모순과 대립을 노정시키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폭로를 통해서 신앙이 불신앙을 이겨 나가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진정한 신앙의 언어로써 말을 한다는 것은 늘 불신앙과의 싸움을 할 수 있고 또 싸움을 한다는 것을 내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신앙의 용어에도 이 두 가지 신앙과 불신앙의 대결을 나타내는 두 가지 면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L: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그러면 ‘미래’라는 말을 생각해 봅시다. 미래라는 것을 단순히 현재라는 시간의 연장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너무 피상적인 생각이라고 하겠지요. 미래라는 것은 마치 빈 집과 같은 해를 우리가 저절로 걸어서 들어가는 공간이 아닐 것입니다. 결국 미래라는 것은 이것 저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존재가 있다는 데 미래의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기다리고, 또 누가 ‘나를’ 기다리는 일에서 비로소 대화나 언어의 교환이 생겨집니다. 내가 기다리고, 또 나를 기다리는 사람 사이에 주고 받는 대화에서는 열정적인 대화, 권태에 가득 찬 대화, 욕질하거나 축복하는 대화가 모두 직접 간접으로 미래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K: 대화라는 말은 좋은 말입니다만, 사실 우리는 대화로써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울부짖음, 호소, 속삭임, 웃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고 울고, 저주하고, 거만한 태도를 취하는 일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대화를 합니다. 이러한 대화를 할 수밖에 없게 하는 것이 무엇이나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미래라는 것이 결정적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과 미래와의 관계에서 인간의 소리가 혼란을 이루고 모든 언어가 실패하는 곳이 바로 양심이라는 것이겠지요. 이 양심이라는 곳에서 모든 것이 서로 만나게 됩니다. 그러기에 미래는 시간의 공허한 연장은 아닙니다. 그것은 양심에 앞으로 찾아 올 것인 동시에 이미 양심 속에 와서 설레게 하는 것입니다.

L: 결국 우리 앞에 시간이 없어질 때, 미래라는 것이 없어질 때에 과연 아무것도 남지 않는가, 죽음이 모든 것의 종말이 되고 마는가 하는 문제가 미래의 문제의 구극적인 점일 것입니다. 미래의 미래는 무엇인가? 죽음인가, 그렇지 않으면 신인가? 기독교 신앙에서는 미래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기독교에서는 미래와 죽음을 접내거나 도피하지 않고, 유혹을 접내지 않습니다.

K: 그 점에서 신앙은 새롭고도 참된 미래를 창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인간의 일상적인 미래들, 신앙의 미래로 바꾸어 간다는 말입니다. 신앙은 미래를 저주로 받아들이지 않고 축복으로 받아들입니다. 신앙에 굳건히 선 양심은 시간적인 것을 축복합니다.